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6화 라훌라의 탄생 ①



태 자의 움직임을 세밀히 감시하고 있던 신하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태자의 모습을 훑도다나 라자에게 보고 하였다. 이에 따라 태자의 출가는 기어코 막아 보려는 훑도다나 라자의 최후의 투쟁이 막을 열게 되었다. 지금까지 라자는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왕통을 이어 줄 것을 설득하여 보았고, 나라 안에 있는 명망있는 브라만들을 동원하여 태자의 마음을 돌리려고도 해 보았으며, 태자의 학장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우다인(Udayin)을 보내 간절하게 설득도 해 보았다.

그때마다 태자를 설득하기는 커녕 설득을 당하고 말아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이 문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라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다. 태자가 비록 삼마디(Samadhi, 三摩提, 三昧)를 취하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도 오욕(五慾)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어쩌면 아직도 혈기 왕성한 태자의 젊음을 공격해 볼 길이 남아 있는 듯 했다. 이리하여 라자는 성 내외에서 500명의 소녀들을 뽑아서 노

래와 춤과 유희등 갖가지의 재주를 가르쳐어 태자로 하여금 오욕의 향락 속에 그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욕(五慾): 인간들이 가장 탐욕하는 다섯가지의 욕망(慾望). 즉 식욕(食慾), 음욕(淫慾), 명예욕(名譽慾), 수면욕(睡眠慾), 재욕(財慾).

부 왕(父王)훑도다나 라자의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될수록 태자의 결심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다. 이러한 태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당황해 하는 훑도다나 라

자의 그늘에는 남편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통곡하는 세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싯다르타 태자의 정비(正妃)인 야소다라 태자비와 제2 부인 고파(Gopa) 그리고 마노다라(Manodhara) 부인이 그들이다. 모두가 왕자에게 시집와 장차 일국의 왕비로서 행복한 여생이 보장되고 있던 여인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왕비 대신 생과부의 신세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태자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눈물로써 서로를 위로하며 태자의 심기가 변하기만을 고대했다.

태 자여... 저희들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습니까... 저희들 궁에 발길을 끊으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나 하고 계시습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태자님의 아내들이운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버리려 하시습니까? 태자님이 저희들을 버리시으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五慾)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 부왕(父王)의 허락을 받아내 출가하여 열심히 수도에 전념하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어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간적인 속세 인연에 얽매어 나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의 이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대들이 나에게 시집을 와 지금까지 얼굴에 슬픈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 그 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으니 어찌하여 아직도 고뇌의 바다속에 허우적 거리는 지아비의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을 심어주려 하는가? 이것이 지아비를 섬기는 아내들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어찌 오욕의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속에서 어느틈엔가 우리도 그속에 빠져 허우적 거릴 수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는데 무슨 경황이 있어 나 홀로 마음 편하게 오욕

태자마마... 저희들은 그런 것 모르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여인네의 소박한 꿈이라 해 봐야 남편인 태자님을 잘 모시고 태자님의 씨를 받아 생산하여 고이 기르면서 태자님의 품속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태자님이 말씀하시는 생노병사의 고뇌는 적어도 저희들 예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했는데 이제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아비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 랑하는 여인들이여... 함부로 내가 가려는 길을 막으려 하지마라. 지각이 있는 남자라면 그의 일생에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으니 나도 다만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르려 한다. 그 첫째는 브라마 · 샤리아(Brahma-Carya) 기간으로, 부모 밑에서 학업과 성전을 공부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은 가르하스타(Garhastha) 기간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집안의 혈통을 계승하게 하고 제 식솔들이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가사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런 후 바나 프라스타(Vanaparasta)시기에 들어서게 되어 아트만(Atman-自我)을 찾으며 수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산야사(Sannyasa)시기, 즉 출가로 궁극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에 가르하스타(가사)를 세우는 기간과 바나프라스타(산야)의 자아를 찾는 기간을 동시에 이루어 이제 산야사(궁극의 진리)의 여행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다만 가문의 혈통을 이어줘야 하는 임무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하여 부왕에게 큰 죄를 짓는 일로써 출가를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